

임실, 맞춤형 복지정책 '우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분야 우수지자체 선정... 17개분야 수상 노인일자리 공익형 최우수기관 '임실시니어클럽' 선정 등

임실군의 맞춤형 복지정책이 대내외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역대 가장 많은 상을 수상하는 진기록을 세웠다.

5일 군에 따르면 임실군은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분야 우수지자체로 선정, 기관 표창을 수상하는 등 총 17개 분야에서 무려 22개의 상을 받았다. 2023년 복지사업수행기관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노인일자리 공익형 최우수기관으로 임실시니어클럽이

선정된 데 이어 장애인활동보조사업 최우수기관으로 임실군장애인연합회 가 영예를 안았다.

또한, 지역자활센터 평가 우수기관으로 임실지역자활센터가 기관표창을 수상하는 등 임실군을 비롯한 4개 기관이 1700만원의 인센티브도 받았다.

이외에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비롯해 취약 노인 보호 유공에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4명), 자활사업유공 및 희망2023나눔캠페인 유공 등에 도지사

표창(9명), 모범공무원(2명), 군정발전 유공(2명) 등이다.

군은 심 민 군수가 군정을 맡은 민선 6기부터 8기에 이르기까지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군정방침으로 정해 흔들림 없는 따뜻한 복지정책에 심혈을 기울였다.

특히, 고령층 인구가 전체 인구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어르신들을 위한 효심복지에 각별한 행정력을 발휘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 어르신 이미용료와 기초연금 지급, 노인일자리 제공, 경로당 운영비 지원 등 어르신 맞춤형 복지정책을 활발하게 전개했다.

장애인 생활 안정 대책과 장애인 단체 지원 등 함께하는 나눔 복지 강화 등을 비롯하여 취약계층을 찾아가 보살피는 수요자 중심의 복지정책 실현에도 힘을 쏟았다.

올해에도 군은 맞춤형복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사회복지분야에 980억 6800만원의 예산을 세웠다. 이는 전체 예산의 20.35%를 차지하고 있는 수치로 어르신 이미용료 지원, 경로당 급식 도우미 파견 등 특색있는 복지사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심 민 군수는 "다양한 복지정책 강화로 삶의 질을 증진하는 풍토와 저출산·고령화 사회 변화에 대응한 생활 복지 실현에도 성과를 올렸다"며 "앞으로도 맞춤형복지에 대한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살기 좋은 임실군을 만들어 가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은 올해 효심복지정책으로 어르신 이미용료 지원, 경로당 급식 도우미 파견 등 특색있는 복지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사진=임실군청 제공)

남원시, 전문컨설팅 대표 투자자문가 2명 위촉

기업 유치 활성화 지원

남원시는 지난 5일, 공장설립과 기업 유치 및 경영에 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전문 컨설팅 대표를 투자자문가(2명) 위촉했다.

이번 위촉은 남원시가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앞으로 투자자문가 활동을 통해 투자 기업이 공장설립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등록, 신고 사항 등에 대해 사전 컨설팅을 지원, 투



자협약부터 공장설립까지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사진=남원시청 제공)

또한,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사항 종합상담과 국내외 기업 정보 교류 및 제공 등을 통해 기업 유치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자문 활동을 펼치게 된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2024년은 남원시에 있어서 투자유치에 중요한 시기인 만큼 투자자문가의 풍부한 투자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 등을 적극 활용해 관내 기업 유치 및 지원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한국석면안전관리협·임실연합중기, 애향장학금 기탁

임실군에 지난 연말 끊이지 않았던 장학금 기탁의 손길이 연초에도 줄을 잇고 있어 지역 인재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선물하고 있다.

(재)임실군애향장학회(이사장 심민)에 따르면 지난 4일 (사)한국석면안전관리협회(본부장 홍준기), 임실연합중기(회장 강삼석)가 임실군을 방문해 이사장인 심 민 군수에게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애향장학

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사)한국석면안전관리협회 홍준기 본부장은 "직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정성을 모아 지역의 참된 일꾼을 키우는 데 힘을 보태고자 애향장학금 3백만원을 기탁한다"고 전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 지리산충훈탑 참배. (사진=남원시청 제공)

남원, 국가보훈대상자 복지 향상

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인상 지원 등 현충시설물 정비 사업 추진

남원시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2024년에도 다양한 보훈 정책을 펼친다.

먼저, 보훈수당 지원 대상자 확대를 위해 지난해 관련 조례를 개정, 올해부터 특수임무 유공자와 5·18민주유공자 등을 포함하고, 65세 이상 나이를 요건을 폐지했다. 또한, 국가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을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 지원한다. 국가유공자 위상 확립과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현충시설물 정비 사업비 4,000만원을 확보해, 지리산 충훈탑 환

경 정비 사업과 월남전 참전자회 기념비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이 밖에도 국가유공자 생신 축하금, 고엽제 전우회 환자 후송 차량 구입, 보훈단체 9개소 사업비 및 운영비,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4·19혁명 및 현충일 기념행사 참석 유공자 보상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오늘날 대한민국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으로 이룩 되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들의 자긍심과 명예를 높이는 다양한 보훈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전지훈련 유치 '스포츠 대표도시' 도약

순창군이 지난해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를 통해 '스포츠 대표 도시'로 도약하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지난 5일 군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47개의 대회, 50개의 전지훈련팀을 유치하여 전년도 대비 연인원 1만 2천 명이 증가한 12만명이 순창군을 찾았으며, 대회 경기 횟수도 2022년 대비 40일 늘어난 216일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발전은 순창군이 스포츠마케팅 추진의 중점적인 방향을 체류형 스포츠 대회 유치로 집중한 결과로, 이를 통해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기여를 이끌어 냈다. 아울러, 주니어 엘리트 선수들이 참여하는 대회를 중점적으로 유치하여 참가 선수들이 경기 참여 일정 및 컨디션 조절을 위해 지역 내에서 숙식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했다.

특히, 대한유소년야구연맹에서 개최하는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는 3개 대회에 연인원 2만 7천명을 동원하는 높은 성과를 보이며, 먼 단위까지 숙박업소와 음식점이 문전성시를 이루기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글로벌 스포츠마케팅'에서는 특히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었다.

군은 탈코로나 시대를 맞아 '글로벌 스포츠마케팅 육성'의 원년으로 선언하여 국제 대회 및 해외 전지훈련팀을 유치하며 스포츠산업 영역을 확장했다. 실제로,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동티모르 등의 해외 전지훈련팀을 유치했으며, 지역 내 실업팀 선수와 학교 지도자들이 참여하는 순창형 소프트 테니스 프로그램을 개발 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벨기에 출신 지명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

지역 소식통

순창군, 시간제 일자리 미취업 여성 인건비 지원

순창군이 미취업 여성들의 경제 활동 촉진을 위해 '경력단절여성 시간제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경력단절여성 시간제일자리 지원사업은 미취업 여성 근로자를 시간제로 고용한 관내 기업에 인건비의 50%를 지원해 참여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 시간제일지리를 확대하여 경력단절여성의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군은 참여기업과 참여 근로자를 연중 수시로 모집하며, 신청기한은 사업량 소진 시까지다.

참여대상 기업체는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순창군 소재 기업으로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일에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인 관내 여성을 신규 고용하는 사업장이다. 참여대상 근로자는 신청일 기준 미취업 중인 18세~69세 이하인 관내 여성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보건의소, 22일부터 구강보건사업 진행

남원시보건의소(소장 한용재)는 오는 22일부터 2월 20일까지 18개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충치 예방을 위한 구강보건사업을 진행한다.

이번 사업에는 치과공중보건 의사와 치과위생사 등 전문인력이 보건소에서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에게 구강검진, 불소도포, 불소양치용액, 치아 홈 메우기, 구강 위생용품 배부하고, 성인이 될 때까지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구강 보건 교육도 추진한다.

이번 검진에서 충치를 발견하면 관내 치과의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며, 치아에 직접 발라주거나 시술하는 불소도포와 치아 홈 메우기를 통해 충치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에서도 치아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가정용 불소양치용액 및 구강 위생용품도 배부하며, 사항은 사항은 보건소 건강생활과 건강증진팀 구강보건실(620-797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